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

정 준 식**

차 례

- | | |
|-------------------------|-------------------------|
| 1. 서론 | 3.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 |
| 2.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서사적 특징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숙대본 A <김희경전>을 여타의 이본과 면밀히 대조하여 그 이본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장편 계열에 속하는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은 □~㉠대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두 이본의 대비 과정에서 드러난 한중연본 <금환기봉>의 특징적인 면모들은 ‘한중연본 유형’의 다른 이본에도 유사하게 수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숙대본 A <김희경전>을 ‘한중연본 유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숙대본 A <김희경전>이 보이는 □~㉠대목의 내용은 ‘김동욱본 A·D·F 조합본’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다. 이처럼 숙대본 A <김희경전>은 기존 논의에서 ‘김동욱본 A·D·F 조합본’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2014AA374)

** 동의대학교 교수

이라는 다소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설정되었던 ‘김동육본 계열’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입증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향후 <김희경전>의 원전 복원 작업에서는 숙대본 A <김희경전>이 핵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숙대본 A 김희경전, 김동육본 계열, 국중본 계열, 성대본 계열, 이본적 가치, 원전 복원

1. 서론

<김희경전>은 최근 여성영웅소설 관련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종래 여성영웅소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단편적으로만 언급되던 이 작품이 최근 들어 이처럼 관심을 받게 된 원인은 기존의 이본과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닌 새로운 이본이 여러 종 발굴되었기 때문이다.¹⁾ 최근 발굴된 이본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김희경전>은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모형을 완성한 작품으로 대략 18세기 말경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만약 이런 추정이 타당하다면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정착 및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1) <김희경전>의 이본에 대해서는 90년대 중반 김만은이 14종을 검토한 이래, 최근에는 정준식이 21종을, 강승묵이 24종을 검토하면서 계열을 나누고 계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10여 종의 이본이 새로 발굴되었으므로 이들을 포괄한 이본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 강승묵, 『<김희경전> 이본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3.

2)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 방법과 창작 시기』,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23~26면.

본고에서 검토할 필사본 180장본 <김희경전>은 3卷 3冊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³⁾ 숙대본 A를 처음 학계에 소개한 강승묵은 이를 ‘한중연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가 말하는 ‘한중연본 유형’이란 완질본으로 남아 있는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전반부·중반부·후반부를 모두 갖춘 이본을 뜻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후반부가 생략된 이본을 그는 ‘성균관대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김희경전>의 이본을 분량에 따라 장편과 단편으로 나눌 경우 후반부의 생략 여부는 확연히 드러나지만 특정 대목 혹은 장면에서 이루어진 생략, 변개, 부연의 구체적 실상은 간과되기 쉽다. 실제로 강승묵은 자신이 발굴한 숙대본 A <김희경전>이 장편 이본 중에서도 특정 장면 혹은 대목에서 생략, 변개, 부연의 흔적을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해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본고는 숙대본 A <김희경전>을 여타의 이본과 면밀히 대조하여 그 이본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말해,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서사적 특징을 한중연본 <금환기봉>과의 대비를 통해 추출한 뒤, 이를 <김희경전>의 이본에 관한 기존 논의의 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김희경전>의 원전 복원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숙명여대 도서관에 소장된 <김희경전>은 180장본과 126장본이 있는데, 두 이본 모두 강승묵에 의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180장본을 ‘숙대본 A’로 126장본을 ‘숙대본 B’로 지칭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이에 의거하여 180장본을 ‘숙대본 A’로 명명하고자 한다. 강승묵은 숙대본 A를 191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필사후기를 제외하고 본문만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 권1이 51장(101면), 권2가 53장(105면), 권3이 76장(151면), 도합 180장(357면)으로 파악된다.

2.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서사적 특징

강승묵은 숙대본 A <김희경전>을 ‘세책업자들의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 세책본’⁴⁾으로 규정하면서 ‘한중연본 <금환기봉>과 국중본 <김상서전>을 저본으로 삼아 생성된 것’⁵⁾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논거가 미약하여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즉 그는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이본이 ‘이소저의 남장 행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중연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소저의 남장 행적’은 장편 계열의 이본에 공통적으로 수용된 후반부의 핵심 서사이므로, 이를 개별 이본의 변별성을 드러내는 준거로 삼기는 어렵다.

<김희경전>은 김희경과 장설빙의 만남·이별·고난을 다룬 전반부, 김희경과 장설빙의 입신·영웅적 활약·혼인을 다룬 중반부, 김희경과 이소저의 만남·이별·혼인을 다룬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장편 계열은 이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단편 계열은 이 가운데 후반부가 생략되었다.⁶⁾ 여기서 검토될 숙대본 A <김희경전>은 전반부·중반부·후반부를 모두 갖춘 장편 계열이므로 강승묵이 이를 ‘한중연본 유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유형’이 주요 장면 혹은 대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면 두 이본을 동일 계통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2.1. 한중연본 <금환기봉>과의 차이점

숙대본 A <김희경전>을 ‘한중연본 유형’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마땅

4) 강승묵, 앞의 논문, 97면.

5) 강승묵, 앞의 논문, 102면.

6)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49~260면.

히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 사이의 동질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강승묵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한중연본 유형’의 대표본인 한중연본 <금환기봉>과 숙대본 A <김희경전> 사이에는 ‘이소저의 남장 행적’을 공유한 것 외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는가? 필자가 두 이본을 면밀히 대조해본 결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 대목(장면)은 다음과 같다.

- ㉠ 정숙공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
- ㉡ 김희경이 최소저 및 여러 부인들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대목
- ㉢ 석태후와 최승상이 만나 김희경과 최소저의 혼인을 약속하는 대목
- ㉣ 급제 후 희경과 설빙의 첫 만남 대목
- ㉤ 장설빙이 보검과 병서를 얻는 대목
- ㉥ 군담 장면
- ㉦ 김정 부부의 생신연 대목
- ㉧ 이소저가 남두노인성에게 환약과 부적을 얻는 대목
- ㉨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대목

위에 제시된 ㉠~㉨은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장면)들로서 ㉠~㉣은 전반부, ㉤~㉦은 중반부, ㉧~㉨은 후반부에 각기 수용되어 있다.

㉠은 김희경이 형초에서 장소저와 이별하고 하남으로 돌아간 뒤의 상황을 그려낸 장면의 일부이다. 김희경은 형초 객점에서 장설빙을 만나 혼약한 뒤 상경하다가 파과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장설빙과 혼약한 사실을 고한다. 그런 다음 부모의 허락 하에 장설빙을 찾아 탁주로 갔지만, 불행히도 그녀를 만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상사병을 앓는다. 이에 김정 부부가 희경에게 장설빙을 적극 찾아 나설 것을 권하니, 희경의 병세가 차츰 호전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형초에서 귀가한 김희경이 부모에게 장설빙과 혼약한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얻는 장면은 <김희경전>의 서사전개상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므로 확인 가능한 모든 이본에 이 장면이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설빙이 그토록 집요하게 김희경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만날 수 없었던 원인을 밝힌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츠시의 정숙공 민은 본디 잔악간인이라 소시의 평장으로 더브러 크게 허물이 있는 고로 피츠 험극이 잇더니 정숙공 민이 하람녕을 향여 오니 평장이 스스로 가권을 거느려 영천으로 이스하니 일노조츠 장소저의 소식 이 더욱 망연허더라⁷⁾

장설빙이 김희경을 만나지 못한 까닭은 정숙공이 하남 태수로 부임해 오자 평소 그와 사이가 좋지 않던 김평장이 가족을 이끌고 영천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내용이 없어도 서사문맥상 별 문제가 없을 뿐 더러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군더더기로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숙공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 숙대본 A <김희경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수용되어 있다.⁸⁾

□은 여장탄금 장면의 일부이다. 여장탄금 장면은 김희경과 최소저의 이색적인 결연을 그려내기 위한 장치로, <김희경전>의 전체 서사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가장 집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장한 남성이 마음에 둔 여성 앞에서 거문고로 여러 곡조를 타다가 마지막에 <봉구황곡>을 연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넘기지 암시하는 □대목은 국내 소설 가운데 <구운몽>에서 처음 축조되어 후대 소설에 널리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다.⁹⁾ <김희경전>의 여장탄금 장면도 <구운몽>의 그것처럼, 김희경이 최승상을 비롯한 남성들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대목과 최

7) 한중연본 <금환기봉>, 102~103면.

8) 이 대목은 국중본 <김상서전>, 고대본 A <김희경전>, 성대본 <김상서전>, 활자본 <김희경전> 등에도 수용되어 있다.

9)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13~118면;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 방법과 창작 시기』,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77~178면.

소저를 비롯한 여성들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대목으로 나뉜다. 물론 이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은 후자이다.

그런데 □대목이 숙대본 A <김희경전>에는 수용된 반면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부인이 좌를 주고 싱을 도라보와 곡도 드르믈 청흐니 싱이 다시 늠풍시를 주흐니 좌우는 식로이 기리고 소저는 드를 싹툼이러라”¹⁰⁾라는 간략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대목이 있든 없든 김희경이 몰래 여장하고 최소저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한 사건은 뒷날 김희경의 여러 부인이 모여 한담 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이 통째로 생략된 이본은 앞뒤 서사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은 김희경과 최소저의 혼약 과정을 그려낸 대목이다. 이 대목은 앞의 □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즉 □과 □은 별개가 아니라 ‘여장결연’이라는 이색적인 서사를 축조하는 하나의 거대한 장면에 포괄되어 있어 둘 사이의 연결이 매우 긴밀하고 유기적이다. 그런데 □이 수용되어 있는 숙대본 A의 □과 □이 수용되지 않은 한중연본 <금환기봉>의 □은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¹¹⁾ □이 수용된 이본에는 최승상이 석태위 부중에 찾아가서 지난 날 여장탄금한 자가 김희경임을 밝혀내는 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그 후에 석태위와 함께 ‘김희경-최소저’의 혼인을 약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²⁾ 이에 비해 □이 수용되지 않은 이본에는 석태위가 최승상 부중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장탄금한 자를 가려내는 삽화는 생략된 채 ‘김희경-최소저’의 혼인을 약속하는 과정만 간략히 그려져 있다.¹³⁾

10) 한중연본 <금환기봉>, 122~123면. 국중본 <김상서전>에도 여장탄금 대목이 생략되고 그 자리에 이와 동일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1) 이러한 차이는 기존 논의에서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장탄금 대목’의 유무에 따라 이어지는 ‘혼약 대목’이 달리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은 차후 <김희경전>의 이본 계보를 수립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12) 숙대본 A <김희경전>, 105~117면. 국중본 <김상서전>에도 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은 형초 객점에서 후일을 기약하고 이별한 김희경과 장설빙이 동방 급제를 계기로 다시 만나 첫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일부이다. 김희경과 장설빙은 형초에서 이별한 뒤 각기 상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길이 계속 엇갈린 탓에 쉽게 만나지 못한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장설빙은 강물에 투신하였다가 전 참지정사 이영에게 구출되고, 장설빙의 투신을 확인한 김희경은 어쩔 수 없이 최승상의 딸과 혼인한다. 그 후로 서로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아가던 두 사람은 동방급제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다. 하지만 강물에 투신했다 구출된 이후 장설빙은 줄곧 남장한 채로 지내면서 자신을 장설빙의 오라비 ‘장수정’으로 속였기 때문에 김희경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남자로 착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목은 김희경이 장설빙을 만났으면서도 그녀를 ‘장수정’으로 착각한 상황 속에서 오고간 대화를 그려낸 것이다. 부친이 북해로 유배될 때 아들로서 왜 따르지 않았느냐는 김희경의 물음에 장설빙은 거짓말을 한다. 어느 날 한 도인이 자신을 보고 단명할 것이니 남을 주어 기르라고 하자, 부모가 자신을 이참정에게 맡기는 바람에 부친의 상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참정을 통해 그 소식을 접하고는 북해로 가서 부친의 시신을 운구하여 선산에 안장했다고 한다.¹⁴⁾ 김희경이 이 말을 듣고 다른 동기는 없느냐고 묻자, 장설빙은 자신이 이참정 집에 보내진 뒤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모친을 여의고 부친마저 적거되자 심규약질로 이리저리 떠돌다 만경창과에 고향이 되었다고 둘러댄다.¹⁵⁾ 이에 김희경은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과 장설빙이 형초에서 만

13) 한중연본 <금환기봉>, 123~125면.

14) 김동욱본 D <김희경전>, 12면, “일〳은 혼 도인이 와 소제를 보고 단명타 ㅎ여 남을 주어 길음을 권ㅎ여 니참정의게 가 길녀 중시 근본을 몰납삼드니 부친 상사의 참정이 남의 천륜을 막지 못ㅎ여 그제야 실정을 이르시미 소제 망극ㅎ여 북해로 가 부친 시신을 운구ㅎ여 선산의 안장ㅎ고 초토를 지너 후 여실이 부지 ㅎ웁다가 요형으로 금방의 참여ㅎ여 망친의 원을 신설ㅎ웁고 지금 소분ㅎ려 ㅎ오니 소분 후 죽사와도 혼이 업나이다”

나 혼약한 사실을 알려주며, 동기처럼 지낼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回에서는 장설빙의 거짓말이 지속되는데도 김희경은 이를 전혀 모른 채 그녀를 죽은 것으로 여겨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숙대본 A <김희경전>에는 수용되어 있는데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수용되지 않았다.¹⁶⁾

回은 김희경과 함께 동방급제하고 환로에 오른 장설빙이 어느 날 초월적 존재로부터 보검과 병서를 얻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장설빙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¹⁷⁾ 서사 전개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이본에 수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본에 따라 장설빙에게 보검과 병서를 전달한 자와 전달 장소가 달리 나타난다. 즉 숙대본 A <김희경전>에는 ‘한 도사’가 ‘퇴조하는 길’에서 전달한 것으로 설정된 반면,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한 유생’이 ‘장설빙의 집’에서 전달한 것¹⁸⁾으로 되어 있다.

回은 장설빙의 영웅성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군담 장면이다. <김희경전>에서 군담은 어느 이본이든 30면 내외의 분량¹⁹⁾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본에 따라 군담의 내용이 확연히 다른데, 그 차이는 ㉠출정 당시 김희경과 장설빙의 직위, ㉡원국과 대적한 나라의 이름, ㉢전쟁의 양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²⁰⁾ 숙대

15) 김동욱본 D <김희경전>, 13면, “다시 문왈 형이 다른 동기 업는닛가 학시 답왈 소제를 니참경 집의 보닌 후 소미를 나으사 유하의 모친이 기세흐신 후 부친이 적거흐시미 심규약질이 외로오를 견디지 못흐여 여츠 ” 이 유리흐다가 부친을 차져보고 죽고져 흐여 북회로 가다가 득달치 못흐고 만경창과의 고힌이 되니 닉 원흔이 흥중에 미쳐드니 오날 형이 무르시니 비회를 검치 못흐여 실정을 고 흐나이다”

16) 국중본 <김상서전>에도 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17) 정준식, 『<김희경전> 원전 재구』,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화회, 2013, 102면.

18) 국중본 <김상서전>, 고대본 A <김희경전>에도 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19) 초기 이본인 김동욱본 D에는 30~61면까지, 후기 이본인 성대본에는 141~169면까지 군담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본 A <김희경전>에는 ㉠의 경우 ‘대원수 겸 수륙병마도총독’과 ‘부원수 겸 위국안찰사’로, ㉡의 경우 원국과 대적한 나라는 ‘위국’과 ‘형국’으로, ㉢의 경우 ‘위국’과 ‘형국’이 함께 원국과 대적하자 장설빙과 김희경이 출정하여 이들을 한꺼번에 무찌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의 경우 ‘대원수’와 ‘부도독’으로, ㉡의 경우 ‘위국’과 ‘남경국’으로, ㉢의 경우 ‘위국’이 변방에서 원국과 싸울 때 ‘남경국’이 황성을 급습하므로 장설빙과 김희경이 위국을 평정한 뒤 급히 황성으로 가서 남경국 군사들을 진압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²¹⁾

㉣은 김정과 석부인의 생신연 대목이다.²²⁾ 김정은 김희경의 부친이며, 석부인은 김정의 아내이다. <김희경전>에는 두 사람의 생신연이 시차를 두고 각기 독립적으로 축조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이본에 두 번의 생신연이 동일하게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김정의 생신연’은 김희경과 장설빙·애월공주가 혼인한 직후에 설정되어 있고 ‘석부인의 생신연’은 김희경과 이소저·영월공주가 혼인한 직후에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은 이본에 따라 수용 혹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장편 계열의 완질본에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장면화 되어 있다. 다만 ㉣이 모든 이본에서 ‘생신연’으로만 그려지지는 않는다. 숙대본 A <김희경전>에는 둘 다 ‘현구고례’로 설정되어 있음에 비해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둘 다 ‘생신연’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대목은 이본에 따라 김정과 석부인의 생신연 대신 모두 현구고례로 되어 있는 경우, 김정의 생신연만 나타나고 석부인의 생신연은 현구고례로 되어 있는 경우, 김정의 생신연이 현구고례로 되어 있고 석부인의 생신연만 나타나는 경우, 김정과 석부인의 생신연이 모두 나타나는

20)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58면.

21) 국중본 <김상서전>, 고대본 A <김희경전>에도 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22) 김정과 석부인의 생신연은 각기 다른 곳에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는 논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같은 항목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경우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김정의 생신연’을 그려낸 이본에는 대부분 ‘외현의 잔치 대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외현의 잔치 대목’은 지난 날 김희경이 초운이란 여악사로 분장하고 최승상을 속인 것에 대하여 최승상이 김희경 대신 그의 부친 김정에게 되갚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㉞은 장설빙과 이소저의 극적인 상봉을 예비하는 대목이다. 이소저는 전반부에서 중첩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 강물에 투신한 장설빙을 구출하고 거두어준 이영찬의 딸이다. 그녀는 전반부·중반부에서 일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후반부에서 갑자기 중심인물로 부상한다. 이소저는 부모 구출 후 장수정을 찾아 경성으로 갔다가 退朝하던 김희경을 만나 부마궁 서당에 머물게 된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유언이 든 금낭을 유실한 후 신분 노출을 꺼려 황급히 부마궁을 나온다. 근처 산속에서 밤을 보내던 이소저는 꿈을 꾸다가 남두노인성으로부터 환약과 부적을 얻게 된 것이다. 이 환약과 부적은 이후 급사한 소참정 부인을 살려내는데 요긴하게 쓰일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소저와 장설빙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㉞은 이소저와 장설빙의 재회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생략하면 서사논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목이 숙대본 A <김희경전>에만 수용되어 있고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나타나지 않는다.²³⁾

㉟은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의 자녀는 장편 계열에 모두 9자 7녀로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딸의 이름, 사위의 이름과 관직, 아들의 관직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아들의 이름은 달리 설정된바, 한중연본 <금환기봉>에는 일기·이기·삼기 등으로 나와 있는데, 숙대본 A <김희경전>에는 구흥·구성·구경 등으로 나와 있다.

23) 한중연본 유형을 대표하는 한중연본 <금환기봉>, 국중본 <김상서전>, 고대본 A <김희경전> 등에 이 대목이 공통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장편 계열에 속하는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은 ㉑~㉒대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이본의 대비 과정에서 드러난 한중연본 <금환기봉>의 특징적인 면모들은 한중연본 유형의 다른 이본에도 동일하게 수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²⁴⁾ 따라서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단지 두 이본의 차이에 머물지 않고 장편 계열의 이본을 둘로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숙대본 A <김희경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²⁵⁾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알려진 완질본 가운데는 숙대본 A <김희경전>의 ㉑~㉒대목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이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선택으로 낙질본을 활용해서라도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서사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이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2.2. 김동욱본 A·D·F 조합본과의 공통점

앞의 논의로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이 ㉑~㉒대목에서 보이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장편 계열의 완질본은 4종이다.²⁶⁾ 이 가운데 숙대본 A <김희경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들은 모두 친연성이 강하므로, 정준식은 이들을

24) 정준식, 『<김희경전> 원전 재구』,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학회, 2013, 97~110면.

25) 강승묵은 숙대본 A <김희경전>을 ‘한중연본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이 이본이 세책본으로 읽혀졌다는 것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았다. 하지만 그는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국중본 <김상서전>이 ㉑~㉒대목에서 보이는 차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숙대본 A <김희경전>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26) <김희경전>의 완질본은 모두 10종이다. 이 가운데 한중연본 <금환기봉>, 국중본 <김상서전>, 고대본 A <김희경전>, 숙대본 A <김희경전>은 장편 계열의 이본이고, 성대본 <김상서전>, 서울대본 <김희경전>, 숙대본 B <김희경전>, 충남대본 <김희경전>, 활자본 A <김희경전>, 활자본 B <여자충효록>은 단편 계열의 이본이다.

묶어 ‘국중본 계열’로 분류하였다.²⁷⁾ 이에 비해 강승묵은 숙대본 A <김희경전>이 다른 세 이본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이를 굳이 ‘한중연본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²⁸⁾ 그러면서 그가 추출해낸 한중연본 유형의 특징은 ①원나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점, ②김평장의 귀향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김평장의 자를 기술하고 있는 점, ④김평장 부부가 명산의 암자에 가서 자식 발원을 한 점, ⑤후반부에 이소저의 남장 행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김희경이 다섯 부인과 두 첩 사이에 아들 아홉과 일곱 딸을 둔 점 등이다. 이 가운데 ⑤⑥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숙대본 A <김희경전>이 ①~⑤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㉔대목에서 확인된 숙대본 A <김희경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의 차이가 그보다 훨씬 크고 분명하기에 두 이본을 동일 계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숙대본 A <김희경전>이 한중연본 <금환기봉>을 비롯한 다른 장편 이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김동욱본 A, B, C, D, E, F, G, 국민대본, 정명기본 A, B²⁹⁾ 등과는 오히려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이들은 종래 ‘김동욱본 계열’로 분류된 이본들로서 모두 낙질본이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김동욱본 계열’은 전반부만 남아 있는 이본(김동욱본 A·B), 중반부만 남아 있는 이본(김동욱본 C·D·E·정명기본 A), 후반부만 남아 있는 이본(김동욱본 F·G·국민대본·정명기본 B)

27)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59면.

28) 강승묵, 『<김희경전> 이본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3, 45~50면.

29) 김동욱본 A는 김동욱 교수 소장본 <김희경전 권지초>, B는 <김희경전 권지일>, C는 <김희경전 권지이>, D는 <김희경전 권지삼>, E는 <김희경전 권지중>, F는 <김희경전 권지하>, G는 <김희경전 권지하>를 가리키고, 국민대본은 국민대 도서관에 소장된 <김희경전 권지삼>을 가리키며, 정명기본 A는 정명기 교수 소장본 <김희경전 권지이>, B는 <김희경전 권지하>를 가리킨다. 정준식, 앞의 논문, 239~243면.

이 각기 자기네들끼리는 강한 동질성을 지니면서 완질본으로 전하는 한 중연본 A, 국중본 A, 고대본 A 등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김동육본 계열’ 중에서도 김동육본 A, D, F는 각기 전·중·후반부만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이 확인된다.

이런 까닭으로 기존 논의에서는 김동육본 A·D·F 조합본을 중심으로 <김희경전>의 원전 재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³⁰⁾ 여기서 ‘국중본 계열’³¹⁾과 김동육본 A·D·F 조합본이 보이는 두드러진 차이로 다음의 대목들이 거론되었다.

- ① 정숙공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
- ② 여장한 김희경이 최소저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대목
- ③ 급제 후 희경과 설빙의 첫 만남 대목
- ④ 장설빙이 보검과 병서를 얻는 대목
- ⑤ 군담 장면
- ⑥ 장설빙이 보검과 병서를 얻는 대목
- ⑦ 김정 부부의 생신연 대목
- ⑧ 이소저가 남두노인성에게 환약과 부적을 얻는 대목
- ⑨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대목

위에 제시된 대목 중 ①②는 김동육본 A·B에, ③~⑦은 김동육본 C·D·정명기본 A에, ⑧⑨는 김동육본 F·G·국민대본·정명기본 B에 각기 수용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전반부는 김동육본 A, 중반부는 김동

30) 정준식, 『<김희경전> 원전 재구』,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화회, 2013, 93~95면.

31) ‘국중본 계열’에 속하는 이본은 국중본 <김상서전>, 한중연본 <금환기봉>, 고대본 A <김희경전>, 한중연본 <장씨효행록> 등이다. 정준식이 설정한 ‘국중본 계열’은 얼핏 보아 강승묵이 설정한 ‘한중연본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강승묵은 장편 계열의 모든 완질본을 ‘한중연본 유형’으로 묶고 낙질본은 의도적으로 제외한 반면, 정준식은 낙질본이긴 하지만 김동육본 A·B·C·D·E·F·G, 국민대본, 정명기본 A·B 등이 지니고 있는 변별성을 고려하여 ‘국중본 계열’과는 별도로 ‘김동육본 계열’을 설정한 것이다.

육본 D, 후반부는 김동육본 F가 내용이 충실하고 문맥이 매끄러우므로 정준식은 김동육본 A·D·F를 조합하여 원전에 가장 근접한 정본을 구축하려 한 것이다.³²⁾ 하지만 그가 설정한 ‘김동육본 계열’에는 완질본이 1종도 없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과연 ‘김동육본 A·D·F 조합본’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이본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했을까하는 의혹마저 제기³³⁾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존 논의에서 미제로 남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숙대본 A <김희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김동육본 A·D·F 조합본’의 ㉠~㉡대목은 앞서 검토된 숙대본 A <김희경전>의 ㉢~㉣대목과 완전히 일치된다. 두 이본에는 공히 정숙공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이 나타나지 않고, 이소저가 남두노인성에게 환약과 부적을 얻는 대목(㉣/㉡)이 장면화 되어 있으며, ㉤~㉥, ㉦대목의 서사 내용 및 세부 표현이 ㉦~㉧, ㉨대목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된다. 나아가 두 이본은 ‘장설빙의 연왕 달초 대목’과 애월공주가 ‘천자에게 김희경과 이소저·영월공주의 혼인을 허락받는 대목’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강한 동질성을 보인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숙대본 A <김희경전>과 ‘김동육본 A·D·F 조합본’이 보이는 이와 같은 동질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숙대본 A <김희경전>을 ‘국중본 계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실제로 숙대본 A <김희경전>이 발견되기 전에는 ‘김동육본 계열’의 존재가능성이 부인되었으니, 이런 관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중본 <김상서전>과 한중연본 <금환기봉>이 지닌 동질성을 근거로 ‘국중본 계열’이 설정되고, 성대본 <김상서전>과 활자본 <김희경전>이 지닌 동질성을 근거로 ‘성대본 계열’이 설정되었듯이, ‘김동육본 A·D·F 조합본’과 숙대본 A <김희경전>이 ㉢~㉣(㉠~㉡)에

32) 정준식, 앞의 논문, 93~111면.

33) 강승묵, 앞의 논문, 4면.

서 보이는 동질성은 ‘김동욱본 계열’을 따로 설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잠시 ‘김동욱본 계열’의 설정에 관한 정준식과 강승묵의 상반된 견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준식은 김동욱본 A·B·C·D·E·F·G·국민대본·정명기본 A·B 등이 군담을 비롯한 여러 대목에서 ‘국중본 계열’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므로 ‘김동욱본 계열’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강승묵은 이들 이본이 모두 전·중·후반부 중 어느 한 부분만 지닌 낙질본이므로, 이들을 이본 계열을 나누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강승묵은 낙질본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낙질본만의 특징들은 정준식이 세밀한 이본 검토를 통해 발견해낸 ‘김동욱본 계열’의 특징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강승묵이 완질본으로 전하는 숙대본 A <김희경전>을 처음으로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급한 낙질본만의 특징들이 기실 숙대본 A <김희경전>에 고스란히 수용되어 있음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김동욱본 계열’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던 강승묵에 의해 ‘김동욱본 계열’이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입증해주는 숙대본 A <김희경전>이 발굴되었으니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김희경전>의 이본에 관한 기존 논의의 쟁점은 필사본으로 전하는 장편 이본을 하나로 볼 것인가 둘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런데 강승묵처럼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을 나누면서 모든 낙질본을 무조건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그의 주장처럼 장편 이본을 모두 ‘한중연본 유형’으로 포괄한다면, 동일 유형 내에서 발견되는 □~☒대목의 뚜렷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정준식은 낙질본으로 전하는 김동욱본 A·B·C·D·E·F·G·국민대본·정명기본 A·B 등 10종을 ‘김동욱본 계열’로 독립시키고, ‘국중본 계열’이 ‘김동욱본 계열’에 비해

㉑~㉒대목에서 생략·변개·부연의 흔적을 지닌 것을 근거로 들어 ‘김동욱본 계열’을 원작의 내용을 충실히 지닌 이본으로 추정하였다.³⁴⁾

주지하듯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김동욱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은 장편으로 대체적인 스토리라인이 같지만 ㉑~㉒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성대본 계열’은 앞의 두 계열에 비해 김희경과 이소저의 결연과정을 그려낸 후반부를 생략함으로써 단편으로 재편된 것이다.³⁵⁾ 이와 같이 <김희경전>은 세 계열로 분화된 이래 각 계열별로 독자적인 패턴을 유지하며 전승되어 왔다. 숙대본 A <김희경전>의 ㉑~㉒대목이 ‘김동욱본 A·D·F 조합본’의 ㉑~㉒대목과 일치하는 것도 이들이 같은 모본에서 파생된 동일 계통의 이본이기에 지닐 수밖에 없는 패턴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숙대본 A <김희경전>은 기존 논의에서 ‘김동욱본 A·D·F 조합본’이라는 다소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설정되었던 ‘김동욱본 계열’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입증해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

최근 <김희경전>의 이본이 여러 종 발굴된 것을 계기로 이 작품의 창작 방법 및 시기, 후대 소설과의 연관성, 장편 여성영웅소설로서의 위상, 원전 재구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힘입어 <김희경전>은 18세기 말경에 창작되어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모형 확립에 크게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경전>을 논의하고자 할 경우, 딱히 어느 이본을 텍스트로 삼아야

34)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49~260면.

35) 정준식, 앞의 논문, 270~273면.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따라서 <김희경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계에 보고된 20여 종의 이본들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정본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김희경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보면 이본 검토를 생략한 채 활자본으로 간행된 <김희경전>이나 <여자충효록>³⁶⁾을 텍스트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정준식이 20여 종의 이본을 검토하여 그들 간의 중요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과거 활자본 중심의 논의가 지닌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³⁷⁾ 이 논의의 가장 큰 성과는 <김희경전>이 창작 당시에는 장편의 분량을 지녔다가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단편으로 축약된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이러한 성과는 <김희경전>의 정본 구축을 위한 단서가 장편 이본에 있음을 示唆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완질본은 단편 6종과 장편 4종으로 도합 10종이다. 장편 4종 가운데 한중연본 <금환기봉>·국중본 <김상서전>·고대본 A <김희경전>은 속대본 A <김희경전>에 비해 □~㉠대목에서 생략·변개·부연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속대본 A <김희경전>의 이런 특징들은 낙질본으로 전하는 김동욱본 A·B·김동욱본 C·D·E·정명기본 A, 김동욱본 F·G·국민대본·정명기본 B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이본에서 특정 대목이 의도적으로 생략·변개·부연된 사실이 일정하게 확인되는 것은 동일 계열 내에서의 변화라기보다 새로운 계열의 생성을 지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희경전>의 장편 이본을 ‘김동욱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로 나누는 것이 이 둘을 함께 묶는 것보다 훨씬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김희경전>의 장편 이본을 ‘김동욱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로 나눌

36) 활자본 <김희경전>은 두 종이 간행되었다. 1914년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여자충효록>과 1917년 광문서사에서 간행된 <김희경전>이 그것이다.

37) 정준식, 앞의 논문, 249~260면.

경우, 두 계열의 선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장에서 확인했듯이 ‘국중본 계열’에는 생략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생략된 경우, 특정 장면이 의도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른 이본에 없던 내용이 부연된 경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생략·변개·부연의 흔적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 ‘김동육본 계열’이 ‘국중본 계열’보다 선행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에서도 ‘김동육본 계열’을 원작의 내용을 가장 충실히 지닌 이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작의 내용을 충실히 지녔다는 것은 ‘김동육본 계열’이 초기 이본의 서사 내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계승한 이본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숙대본 A <김희경전>은 초기 이본을 계승한 것 가운데 유일한 완질본인데다 내용도 비교적 온전하기 때문에 향후 원전 복원의 핵심 자료로 삼을 만하다. 이것이 바로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가 아닐까 한다.

물론 숙대본 A <김희경전>은 부분적인 결함도 보이고 있다. 국문 표기가 문법에 맞지 않게 필사되어 판독이 쉽지 않고 후반부 말미에는 군데군데 생략된 내용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정도의 결함은 ‘김동육본 A·D·F 조합본’을 참조하여 충분히 기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이를 제외하고 보면, ‘김동육본 A·D·F 조합본’에만 있고 숙대본 A <김희경전>에는 없는 내용이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임에 비해, 숙대본 A <김희경전>에만 있고 ‘김동육본 A·D·F 조합본’에는 없는 내용은 서사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숙대본 A <김희경전>과 ‘김동육본 A·D·F 조합본’을 핵심 자료로 삼아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원전에 가장 근접된 定本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여성영웅소설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약 1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 완만하게 모색, 형성, 정착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희경전>과 <홍계월전>이 각기 장편 및 단편 여성영웅소설의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래 들어 <김희경전>과 <홍계월전>이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정착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두 작품 모두 이분 간의 차이가 분명한 데다 그 차이가 여성영웅소설사의 추이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희경전>과 <홍계월전>은 공히 창작 당시 장편의 분량을 지녔다가 후대에 이르러 단편으로 줄어드는 변모를 겪었다. 그 변모의 구체적 실상은 후반부의 생략으로 확인되는데, <김희경전>은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을, <홍계월전>은 ‘오·초 양왕의 아들 및 손자들이 벌이는 두 차례의 군담’을 생략하였다. 후반부를 통째로 생략한 결과 두 작품은 19세기 후반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합치되는 서사원리를 지니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김희경전>과 <홍계월전>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정착과정은 물론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해 <김희경전>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홍계월전>의 그것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심지어 <김희경전>의 경우 아직 연구에 활용할 만한 定本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나 문제의 심각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숙대본 A <김희경전>의 발굴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앞서 논의된 바처럼, 숙대본 A <김희경전>은 기존 논의에서 ‘김동욱본 A·D·F 조합본’을 토대로 추정되었던 ‘김동욱본 계열’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숙대본 A <김희경전>과 ‘김동욱본 A·D·F 조합본’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원전에 근접된 定本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김희경년> : 숙명여대 도서관 소장, 180장, 완질본(숙대본 A)
<김상서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43장, 완질본(국중본 A)
<김희경전 권지초> : 김동욱 소장, 68장, 낙질본(김동욱본 A)
<김희경전 이> : 김동욱 소장, 50장, 낙질본(김동욱본 D)
<김희경전 체삼> : 김동욱 소장, 53장, 낙질본(김동욱본 F)
<김희경전> : 고려대 도서관 소장, 162장, 완질본(고대본 A)
<금환괴봉>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88장, 완질본(한중연본 A)
<김승서전> : 성균관대 도서관 소장, 112장, 완질본(성대본)
<김희경전 권지이> : 정명기 교수 소장, 52장, 낙질본(정명기본 A)
<김희경전 中下> : 정명기 교수 소장, 66장, 낙질본(정명기본 B)
<김희경전 권지삼> : 국민대 도서관 소장, 34장, 낙질본(국민대본)
<김희경전> : 활자본, 광문서시 간행,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권, 120면
(활자본 A)
<여자충효록> : 활자본, 신구서림 간행, 『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 9권, 73
면(활자본 B)

연구논저

- 강승묵, 「<김희경전> 이본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3.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5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
연구학회, 2007, 237~274면.
정준식, 「<김희경전> 원전 재구」,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학회,
2013, 89~119면.

<Abstracts>

Sukdae-bon A <Kim Huigyeong-jeon>'s Value as a Different Edition

Jeong, Jun-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lue of sukdae-bon A <Kim Huigyeong-jeon> as one of the different editions by comparing it with the others precisely.

Sukdae-bon A <Kim Huigyeong-jeon> and hanjungyeon-bon <Geumhwangibong> corresponding to full-length series show distinctive difference from a to i parts.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hanjungyeon-bon <Geumhwangibong> revealed in the process of comparing the two different editions were accepted similarly to hanjungyeon-bon's other different editions. On the other hand, sukdae-bon A <Kim Huigyeong-jeon>'s a to i parts are included in 'Kim Donguk-bon's A · D · F combined editions' intactly. Therefore, sukdae-bon A <Kim Huigyeong-jeon> can be regarded as precious material that can clearly prove 'Kim Donguk-bon series' were actually present though they have been established by advanced research based on rather insufficient material of 'Kim Donguk-bon's A · D · F combined editions'. Accordingly, follow-up work to restore the original of <Kim Huigyeong-jeon> should take this as nuclear material, and this can be said to be the very value of sukdae-bon A <Kim Huigyeong-jeon> as one of the different editions.

Key Words : sukdae-bon A Kim Huigyeong-jeon, Kim Donguk
edition series, gukjung-bon series, seongdae-bon series,
value of a different edition, restoration of the original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20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